

중동 정세 불안 속 식품 포장재 수급 점검... 정부, 가수요 차단 및 공급망 안정 총력

- 가수요 등 시장 교란 요인 선제적 차단, 포장재 안정적 공급 체계 관리 총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4일(금)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포장재 제조업체인 동원시스템즈 아산사업장(충남 아산시 소재)을 방문하여 식품·외식 포장재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해 나프타 공급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석유화학 원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PE·PP 등 석화 소재 의존도가 높은 식품 포장재 업계의 공급 불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원료 가격상승을 우려한 가수요가 발생해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포장재 원료와 완제품의 재고 보유현황은 물론, 전반적인 생산·공급 동향과 향후 원료 수급 전망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포장재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로 ▲필름 원단 등 기초 원료 수급의 어려움 ▲다층 포장 구조에 따른 생산 제약 ▲수입 원료 의존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제시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포장재는 식품 산업 전반의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가수요 등 시장 교란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포장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유미선 (044-201-2111)
		담당자	사무관	노규진 (044-201-2123)